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뒷이야기

“간절함, 선정 비결”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의 유치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가운데, 그 중심에서 맹활약을 통해 함께 뛰었던 유인탁 후보대사의 노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제 출신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 선수촌장을 지낸 그는 이번에 전북 올림픽 개최도시 유치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어렵게 유 홍보대사를 만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홍보대사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인맥과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종목 단체 회장이나 상임부회장 중 상당수가 저와 70~80년대 태릉선수촌에서 함께 훈련했던 분들이다. 저는 84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당시 선배들이 지금 각 종목 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고 했다.

유 홍보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강선 회장과 하루에도 6종목 이상의 체육 단체장을 만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에 12시, 2시, 4시, 6시, 8시까지 두 시간 차이를 두고 약속을 잡고 끊임없이 회합들을 만났다. 하루에 이처럼 6명씩 약속을 잡고 만났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김관영 도지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라는 것이었다. 이번 성공은 김 지사의 그 간절함이 결국 빛을 발했다고 본다.”고 했다.

유 홍보대사는 전북의 국내 후보지 선정을 ‘국가대표 선발전’에 비유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마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북이 대표로 뽑힌 것과 같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국제 무대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 아시아권 10여 개국과 경쟁해야 한다.”며 “2036년 하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다행히



유인탁 후보대사

국내 후보지 선정
국내 선발에 비유
“끝까지 도전” 포부

IOC가 소도시 중심의 분산 개최를 올림픽 아젠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홍보대사는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없으면 꿈을 꾸지도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아예 집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 단체장들을 만나느라 전북에 내려오지도 않았다. 저는 물론 김관영 도지사도 이번 2036 전북올림픽 개최에 정말 올인했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이제 전북이 국가대표로 뽑혔으니, 세계 무대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전북이 국제 무대에서도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체육회와 핵심 관전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2036 전북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맹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만호 기자

“만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단독 유치 선정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국내 후보도시 단독선정 기자회견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후보도시 단독 유치 선정을 축하하는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고창군, 동계 전지훈련 유치
1억5000여만원 경제효과 창출

고창군이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 5,000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선 1~2월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등 34개팀 560여명이 스포츠타운, 군립체육관 등에서 훈련했다. 이는 전년 동계 시즌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고창스포츠타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으로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유소년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고 군립체육관, 공설운동장, 전지훈련센터와 근접해있으며 주변 숙소, 식당과도 접근성이 높다.

특히, 전지훈련센터에는 근력과 유산소 운동 기구가 내실있게 설치되어 폭설로 야외 훈련이 어려울 때에도 선수들이 훈련 공백없이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고창을 방문한 선수단은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을 이용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의 소비활동을 견인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지훈련을 위해 고창을 찾은 선수단이 불편함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창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체육 인프라 확대와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고창을 찾도록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정상 차지

결승서 인천대 1:0 누르고 우승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통영에서 개최된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에서 인천대를 1:0으로 누르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2021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과 2022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을 통해 축구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주대는 1985년 창단 이후 첫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대는 조별 예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다. 이어 세경대를 2:1로 꺾고 8강에 안착했다. 8강에서는 고려대와 전·후반 승부를 내지 못한 이후 승부차기 끝에 8:7로 귀한 승리를 따냈다. 지난 2017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 경기에서 고려대에 석패했던 아쉬움을 해소한 경기였다. 이어진 4강에서는 청주대에 1:0으로 승리하며 우승의 문턱에 다가섰다.

결승 경기는 쉽지 않았다. 전반전은 인천대의 강한 경기력에 잠시 주춤하며 0:0으로 마쳤다. 후반전이 시작되며 비가 내리는 변수 속에서 전주대는 경기 운영의 재정비를 마쳤다. 후반 7분 전주대 정현수 선수의 완발 강력한 중거리 슈트가 인천대의 골망을 가르며 1:0으로 앞서갔다. 선취골 이후 전주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



지난 1일 통영에서 개최된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우승을 기뻐하고 있다.

국 1:0으로 승리하며 전국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섰다.

직접 경기장을 찾아 우승을 지켜본 박진배 총장은 “우리 대학 축구부가 전국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이 순간이 무척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설 연휴도 반납하고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들과, 축구부 지도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혁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믿고 동료들을 신뢰해 즐거운 축구를 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팀 창단 후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만큼 우리 대학이 대학축구를 선도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9일 개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오는 9일 정읍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은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내장산 우화정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며, 정읍의 역사와 자연을 만끽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정읍을 대표하는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자세한 대회 코스와 통제 구간은 정읍동학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